

한국의 디지털전환정책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정인숙

이 연구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과정에서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으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지를 탐색하였다.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위험확률과 위험영향으로 구분하여 추출한 후 위험정도의 순위를 결정하였다.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위험정도가 높은 요인들은 디지털 난시청 문제, 방송 시청 불가 세대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 공시청설비의 노후 등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미래예측방법론인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전환 관련 현업과 학계, 정책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으로 아날로그방송종료로 인해 TV시청이 어려워지는 가구에 대한 대책, 단계별 위험관리과 모니터링 및 디지털전환에 소요되는 예산확충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디지털전환, 아날로그방송종료, 위험요인, 정책델파이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지상파TV의 디지털전환은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로 아날로그TV를 종료하기로 디지털전환특별법 상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환 종료를 완료한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아날로그방송의 종료는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정이다. 2009년 6월 12일,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을 마친 미국의 경우 2차례의 연기 끝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였으나 종료 당일까지 2.5%의 미전환율을 보였으며 미처 전환 준비가 되지 않은 시청자들의 문의 전화가 FCC에 쇄도하였다(Nielson, 2009, 1-3; Svensson, 2009). 따라서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스타크스(Starks, 2004: 27-35)는 가장 체계적으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추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시청자들의 디지털 전환 거부 가능성과 디지털전환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조심스럽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정책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기교가 필요한 정책이며, 국민 전체의 협조 하에 모든 TV 수상기를 교체하기 때문에 시청자이자 유권자인 국민들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인숙, 2008a: 287-322).

물론 일시 종료를 택한 미국이나 지역별 단계별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영국 등에서는 다양한 시청자 대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진행하였다. 따라서 스타스가 예측했던 소비자 저항은 주요 선진국에서 사실상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수용자들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 문제는 현실화되었지만 대처가능한 수준의 문제였다.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도 이들 국가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디지털 전환은 2000년도의 Y2K처럼 크게 우려했으나 다행히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정인숙, 2009: 5-33).

그러나 국가마다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직접수신가구의 규모, 유료방송의 발달 정도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위험요인 역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디지털전환의 방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전환이 진행되면서 일부의 위험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전혀 다른 위험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떤 위험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그밖에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들은 무엇이고,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미래예측방법론인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디지털전환 관련 현업과 학계, 정책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위험의 정도와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1.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별 특징 및 현황

미국이나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이미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날로그 종료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2009년 12월 현재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안도라, 스위스, 벨기에, 독일,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 약 10개국 아날로그 방송을 이미 종료하였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회에서 2012년을 아날로그 종료 기간으로 권고하여 이에 맞춰 종료계획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은 다소 늦은 2015년, 2016년 종료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한 국가는 룩셈부르크이며, 2006년 디지털 전환을 시작하여 2006년 9월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였으며, 지

역별로 가장 먼저 종료한 지역은 독일의 베를린 지역으로 나타났다.

종료 방식에 있어서는 전국 동시 종료 방식을 택한 국가와 지역별 순차종료 방식을 택한 국가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7.53년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속하게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국가는 최초로 전환을 완료한 룩셈부르크로서 디지털 전환에 단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미 전환을 완료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진행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별 순차 종료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종료 유형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최선욱, 2008: 54-57),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경우 동부에서 시작하여 서부지역에서 완료하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는 대도시부터 아날로그 종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된 것은 2008년 3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이 제정 공표되고 이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인숙(2009: 5-33)은 1997년부터 무려 12년간 디지털 전환이 중요한 정책이슈이기는 했으나 디지털 전환이 갖는 시청자차원의 함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2008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에 대한 연구 역시 그동안 주로 법제적인 이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강상현, 2008; 방송위원회, 2006a, 2006b, 2006c; 정인숙, 2007, 2008a, 2008b; 최선욱, 2007; 최용준, 2008), 디지털전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실재적인 정책이슈들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에 관한 연구(박시백, 2009; 이종화·정용찬·김남두·신호철, 2009; 정인숙, 2009)를 중심으로 디지털전환정책 연구가 좀 더 세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이다. 그밖에 아날로그방송 종료와 관련한 홍보와 재원조성방안(최선욱, 2009a)이나 수신환경 실태와 개선(최선욱, 2009b; 신중섭, 2009)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계획수립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2. 디지털전환의 위험 요인

국내와 동일한 전환일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 비해 국내의 디지털전환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디지털전환을 가장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디지털 TV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수 차례의 디지털 전환 위험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을 추출한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디지털전환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던 스타크(2004: 27-35)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총 25가지의 위험요소들을 추출하였다.

- 각각의 위험 요인 추출
- 위험 확률과 그것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들을 평가(척도 1~3)
- 그러한 결과가 가져올 잠재적 영향을 평가(척도 1~3)
- 확률과 효과를 곱해 점수 부여(척도 1~9)

25가지 위험목록 중 12가지가 6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인은 소비자 저항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복잡성으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9점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혼동된 책임의 위험,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신장비의 부족, 가전매장 직원의 잘못된 정보, 잘못 훈련받은 안테나 기사, 준비되지 않은 공적기구들, 과도하게 증가된 에너지 사용량 등이 위험요인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영국의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지역인 페리사이드(Ferryside)나 볼튼(Bolton)의 아날로그방송종료 과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영국과는 달리 미국은 원래 계획했던 종료일인 2월 17일보다 약 4개월이 연기된 2009년 6월 12일 미전역의 기간송신소(full power station)가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을 종료하였다. 미국 FCC 등은 6월 12일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가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발표는 하였으나, 주요 위험요인들은 FCC가 종료일을 연기토록 요청하는 과정 및 의회의 연기 결정 시기였던 2009년 1월 전후 주요 서한 등에서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위험요인은 이미 상당부분 예견된 것이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Civilrights는 2008년 7월 개최한 리더쉽 컨퍼런스에서 미국 내 수백만이 긴급 정보, 뉴스 및 공공정보의 취득을 위해 의존하고 있는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의 종료과정에 필요한 조사, 소비자 교육 및 홍보에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의 위험요인들을 지적한 바 있다(Lloyd, 2008).

- 지상파 아날로그TV방송 종료에 대한 시청자 인지의 부족
- 시청자 및 가전매장 직원의 혼란
- TV 컨버터박스 쿠폰 프로그램 문제와 복잡성
- 시청자의 과도하고 예측하지 못한 비용과 부담
- 종료 대상인 기간송신소 이외의 아날로그 방송을 유지하는 저출력 송신소 및 커뮤니티 방송국에 대한 혼돈
- 불필요한 고사양 TV 판매권유(upselling)의 보고
- 디지털 컨버터 취득의 어려움
- 자막 및 화면 해설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컨버터, 케이블, 위성에서의 어려움
- 2009년 2월 17일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계획부재

미국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상황을 2000년 날짜변경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였던 Y2K 버그의 대응사례에 주로 비교하고 주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한 바 있다(GAO, 2007). 그러나 정작 아날로그방송종료를 32일 남겨둔 상황에서 신임 오바마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시청자 지원에 필요한 쿠폰의 부족으로 종료일의 연기를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연기법안의 의결은 하원의 반대로 인해 재상정하여 의결되는 과정 등을 겪었다(Hart, 2009).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FCC의 Copps와 Adelstein 위원은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의 연기와 관련한 서한에서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적시한 바 있다(Copps & Adelstein, 2009).

1. FCC와 NTIA(또한 타 정부부처)간 및 공공기관과 기업 등 민간영역 간의 부적절한 협력,
2. 개인차원에서 어떻게 아날로그방송 종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소비자 교육의 부족
3. 디지털 방송 수신과 안테나 문제, 자막방송 등 확실히 시청자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한 기존 관심 부족
4. 문의전화에 대응해야 하는 콜센터 구성에 있어 외부기관과의 연계 및 가정방문지원에 대한 계획 부재 등의 시청자 지원 부족

디지털 전환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의 위험요인과 아날로그TV방송의 종료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위험요인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일부의 경우 위험의 비중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국가 간에 디지털 전환의 계획 및 실행 방법이 다르게 접근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연구문제 2: 한국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의 위험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3: 한국의 디지털전환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두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정책 델파이(policy delphi) 방법을 사용하였다. 델파이방법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질의와 응답을 2-3차례 실시하여 합치된 의견을 추출해내는 연구조사과정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미래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이 예견하는 가장 적합한 추론을 얻어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델파이 방법론 중에서도 정책 델파이는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전문가나 정책결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정책관련자에게 서로 대립되는 의견을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게 하는 방법론이다(원종원, 2008: 239-252).

디지털전환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연속 세 번에 걸쳐 정책델파이조사(policy delphi)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10인은 디지털전환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관계자 2인과 지상파방송 3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 3인, 케이블TV 1인, 그리고 학계 및 연구소 3인, 시청자단체 1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델파이 조사 기간은 <표 1>과 같이 2009년 10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3번의 조사 모두 10명의 전문가가 동일하게 참여하였다. 첫 번째 설문은 디지털전환 위험요인에 대해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연(2003: 36-41)의 위험유형 구분에 따르

면 디지털전환은 사실상 인위적 위험군에 속한다. 따라서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지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모든 위험요인과 스타크스(2004: 27-35)가 제시한 위험요인을 합치고, 위험발생확률요인들을 취합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세 번째 설문은 2차 설문분석결과에서 제시된 핵심 위험 요인들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표 1> 정책델파이 조사 개요

구분	대상자	주요 설문 내용 및 특징	서베이 기간
1차 설문	10명	○ 디지털전환 위험 발생 확률이 높은 요인 2가지 ○ 위험발생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요인 2가지	2009.10.26-11.6
2차 설문	10명	○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험 정도분석	2009.11.16-11.24
3차 설문	10명	○ 디지털전환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 방안 조사	2009.12.7-12.15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국내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10인에 의해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요인들을 각각 2가지씩 제시하도록 한 결과 총10가지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차원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 정부(정책) 요인, 시청자 요인, 사업자 요인, 기술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1차 델파이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위험요인 중에서는 시청자 차원의 위험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위험발생확률이 높은 요인들

위험 요인의 원인	위험 요인	명
정부(정책) 요인	아날로그 종료일자의 강행에 따른 문제	1
	디지털전환 거부자의 발생 및 민원문제	3
시청자 요인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 문제(셋탑박스 연결, 채널 재설정, 안테나 조정 등)	3
	방송 시청 불가 세대의 다수 발생 문제	4
사업자 요인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의 지연문제	1
	방송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	2
기술적 요인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사업자간, 정부 부처간, 정부-사업자간 등)	1
	셋탑박스의 정상 작동 및 기능 문제	1
	디지털난시청(인위적 난시청 포함) 문제	2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	1

한편 스타크스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위험발생확률요인과 파급효과요인을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에 따르면 위험발생확률이 높은 요인들로는 주로 정부(정책)적 요인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정책요인 중에서도 위기발생확률이 높은 요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보의 문제가 파급효과가 높은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밖에 아날로그 동시종료에 따른 문제, 시청자지원문제, 지상파의 경쟁력 및 인프라 상실의 문제도 파급효과가 큰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디지털난시청 문제,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문제,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문제 등이 2.5이상의 점수를 얻어 발생확률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3점 높음, 2점 보통, 1점 낮음).

국내 전문가들이 위험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위험요인들까지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가능한 디지털전환 위험요인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총 23가지의 요인들을 추출해볼 수 있다.

<표 3> 국내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위험요인 23가지

구분	위험 요인
발생확률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요인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언급된 요인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사업자간, 정부 부처간, 정부-사업자간 등)
	방송 시청 불가 세대의 다수 발생 문제
	디지털전환 거부자의 발생 및 민원문제
	디지털난시청(인위적 난시청 포함) 문제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의 지연문제
위험요인으로만 언급된 요인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 문제(셋탑박스 연결, 채널 재설정, 안테나 조정 등)
	방송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
	셋탑박스의 정상 작동 및 기능 문제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
	아날로그 종료일자의 강행에 따른 문제
파급효과가 큰 요인으로만 언급된 요인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문제
	아날로그 종료 방식(동시 종료)의 문제
	홍보의 문제
	지상파 디지털전환 실패로 인한 지상파 인프라의 위상 상실 문제
	국내외 경제상황 및 방송환경변화 요인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이 판단한 요인	정책책임 주체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문제
	시청자 지원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컨버터 지급대상, 콜센터 규모, 방문설치지원 등)
	HD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에 따른 문제
	디지털전환 인지율의 저조로 인한 문제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
	가전 매장의 잘못된 홍보로 인한 문제
	디지털방송권역 출력감소에 따른 수신 장애 문제
	아날로그방송 종료시점에서 수신기나 안테나 등 수신장치의 공급부족문제
대형 평면TV로의 대체에 따른 사회적 전력소비의 증가로 인한 문제	

2. 연구문제 2: 위험요인별 위험정도

2차 델파이에서는 이들 요인들에 대해 ‘위험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타크스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여 위험요인의 위험정도는 위험요인의 발생확률과 파급효과를 곱한 값으로 파악하였다. 발생확률과 파급효과를 각각 높음(3점), 보통(2점), 낮음(1점)으로 점수를 매겨 각 위험요인의 위험정도 최대값은 9점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위험요인 외에도 외국의 사례에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거나 제기된 요인들을 추가하여 총 23개의 위험요인들에 대해 위험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10인이 발생확률이 높고 파급효과도 큰 요인으로 지적한 요인은 5가지이며, 위험요인으로만 언급한 요인은 5가지, 파급효과가 큰 요인으로 지적한 요인은 5가지, 그리고 델파이 대상 전문가들이 언급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에서 나타난 요인들을 감안하여 연구자들이 판단한 위험요인 9가지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위험정도가 가장 높은 요인은 디지털난시청 문제(6.8점), 방송시청불가세대의 다수 발생문제(6.7점),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6.5점)가 가장 위험정도가 높은 군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홍보의 문제,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 문제,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의 지연문제, 디지털전환 인지율의 저조로 인한 문제,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위험정도가 높은 요인 상위 10가지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위험정도가 높은 10개 위험요인

위험요인	발생확률	파급효과	위험정도
디지털난시청(인위적 난시청 포함) 문제	2.7	2.5	6.8
방송 시청 불가 세대의 다수 발생 문제	2.3	2.9	6.7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	2.7	2.4	6.5
홍보의 문제	2.3	2.5	5.8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 문제(셋탑박스 연결, 채널 재설정, 안테나 조정 등)	2.6	2.2	5.7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	2.7	2.1	5.7
디지털전환 인지율의 저조로 인한 문제	2.1	2.7	5.7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의 지연문제	2.1	2.7	5.7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문제	2.5	2.2	5.5
시청자 지원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컨버터 지급대상, 콜센터 규모, 방문설치지원 등)	2.4	2.1	5.0

위험정도가 큰 10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발생확률과 파급효과간의 격차가 가장 큰 요인은 디지털전환 인지율의 저조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전환 인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하는데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청자의 전환거부는 발생확률은 낮지만 파급효과는 매우 큰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비전환자가 많을 경우 그들의 불만이 여론화되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제시되었다.

사업자 차원의 네 가지 위험요인 중에서는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위험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차원으로 분류된 다섯 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는 디지털난시청 문제가 위험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공동주택의 공시청 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이다. 정책적 차원의 9가지 위험요인 중에서는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문제가 위험정도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 분석했던 MStarks가 2004년에 사용한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양국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았는데, 영국에서는 9점 만점의 위험도에서 9점이 나온 위험요인이 두 개나 있었지만 국내 전문가들이 예측한 위험도값은 디지털난시청문제가 6.8점으로 최고로 나타났다. 또한 영국은 25개 위험요인 중 6점 이상의 위험도 값을 받은 요인이 15개가 나온 반면, 우리의 경우 23개 위험요인 중 6점 이상의 위험도 값을 받은 요인은 3개에 불과했다.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전환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 값을 비교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 전환 위험요인 비교

순위	영국의 위험요인	확률	영향	위험 정도	순위	한국의 위험요인	확률	영향	위험 정도
1	시청자의 전환거부	3	3	9	1	디지털난시청(인위적 난시청포함) 문제	2.7	2.5	6.8
2	소비자가 느끼는 기술적 복잡성	3	3	9	2	방송 시청 불가 세대의 다수 발생 문제	2.3	2.9	6.7
3	투자주체와 정부간, 정부부처간 협조부족	2	3	6	3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에 따른 문제	2.7	2.4	6.5
4	불확실한 리더쉽	2	3	6	4	홍보의 문제	2.3	2.5	5.8
5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실질적 지원 예산	2	3	6	5	시청자들이 느끼는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 문제(셋탑박스 연결, 채널 재설정, 안테나 조정 등)	2.6	2.2	5.7
6	혼란을 야기하는 홍보	2	3	6	6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 및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한 문제	2.7	2.1	5.7
8	수신기나 녹화기 공급부족	2	3	6	7	디지털전환 인지율의 저조로 인한 문제	2.1	2.7	5.7
9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부족	2	3	6	8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의 지연문제	2.1	2.7	5.7
10	실질적인 지원 부족	2	3	6	9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문제	2.5	2.2	5.5
11	소비자의 낮은 디지털 전환율	2	3	6	10	시청자 지원범위의 제한에 따른 문제(컨버터 지급대상, 콜센터 규모, 방문설치지원 등)	2.4	2.1	5.0
12	시청자에 대한 가전매장의 잘못된 정보	2	3	6	11	이해 당사자 간 갈등	2.3	2.1	4.8
13	공시청 설치 기술	3	2	6	12	아날로그 종료일자의 강행에 따른 문제	2.0	2.4	4.8

〈표 5〉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 전환 위험요인 비교(계속)

순위	영국의 위험요인	확률	영향	위험 정도	순위	한국의 위험요인	확률	영향	위험 정도
14	공공단체들의 예상치 못한 공적자금 지출	2	3	6	13	디지털 전환 거부자의 발생 및 민원문제	2.0	2.2	4.4
15	특정한 소비자단체들의 관여	3	2	6	14	가전 매장의 잘못된 홍보로 인한 문제	2.3	1.9	4.4

국내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디지털전환 위험요인들에 대한 위험도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국내의 경우 이미 디지털전환을 완료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통해 사전학습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는 이 연구가 시범사업 이전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현상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페리사이드(Ferryside)와 볼튼(Bolton)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을 먼저 종료하는 시범종료사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요인들이 식별하였으며, 해당 위험요인의 해결방안들을 시범종료사업을 통해 도출했기 때문이다.

3. 연구문제 3: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 방안

위험요인에 대한 정책방안의 경우 각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신이 생각하는 위험요인 2가지씩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관식으로 제시하도록 하였고, 다시 각각의 위험요인의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합쳐서 그 타당도를 객관식으로 질문하였다. 타당도는 4점 척도(1: 전혀 타당하지 않다 2: 타당하지 않다 3: 타당하다 4: 매우 타당하다)로 분석하였다. 정책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간값을 두지 않고 타당성 여부를 4점 척도로 구분하였다.

정부입장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방법, 경제적·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실질적 지원체계의 구축, 비전환자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 대한 지원,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접근성 보장, 필요 예산의 대폭 증액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취약계층 및 시청자 지원에 대한 3가지 정책방안은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컨버터의 무상 공급, 기술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방문 지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책방안에 대해 4점 척도로 타당도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 10인 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책방안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부분은 난시청 지역 시청자에 대한 유료방송 지원부분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난시청 지역의 경우 유료방송을 통해서라도 TV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무료 위성방송 패키지 보급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유료방송을 이용한 취약계층의 수신 지원은 KBS 등에 의해 직접 수신환경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최소화 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점에 특정 시청자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다고 하여 수신환

경 개선 대상에서 제외해서도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위험정도가 높은 10대 요인 중의 하나인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TV 시청불가 세대의 대량 발생 가능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1차 조사에서는 8가지의 안이 제시되었다. 8가지 안에 대한 타당도 조사에서 종합적인 노력과 다양한 수혜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유료방송 가입 유도에 대해서는 전원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료방송을 통한 세프티넷 구축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전문가가 더 많았다.

인위적 난시청에 대해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수신료의 면제 및 간접수신 비용 제공, 유료방송매체를 통한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게 나타났다. 특히 케이블TV 입장에서는 디지털 난시청에 대해 지상파와는 다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의 인위적 난시청이 디지털 시대에는 자연적 난시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본의 사례처럼 유료방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들의 송신인프라 구축 부진에 대한 정책방안으로는 주파수 재배치 조기완료, 송중계소의 전환투자를 2012년에 선투자, 송신기 관련 발주를 조기에 완료, 디지털방송 수신가능지역 맵, 정부의 방송보조금 구축 지원 등의 안이 1차 델파이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2개 안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 견해차가 많이 나타났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재원의 충분한 확보, 단계적 전략적인 홍보계획의 수립, 방송사의 협조를 통한 반복적인 정보제공,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 조사, 매체중립적인 홍보 등의 정책안이 제시되었다. 지상파입장에서는 유료방송의 잘못된 홍보로 인해 디지털전환 홍보가 유료방송 마케팅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라 할지라도 직접 수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판매된다고 할지라도 디지털TV에 안테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직접 수신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유료방송사 입장에서는 자칫 홍보문구 등이 특정 매체 편향적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중립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별 시청자 지원에 대한 정확한 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의 지역 선정에 대해서는 대도시 지역을 추가선정,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실증조사, 1차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 등의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2.8 수준의 타당도를 보였다.

시범사업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은 인쇄물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한 고지 및 안내, 집행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 설계와 대비책 마련, 사후 해결절차 마련, 합리적 지원으로 주민반발 최소화 방안 등 8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이중 가장 타당도가 높은 안은 인쇄물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정확한 안내 및 고지, 집행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체계적 설계와 대비책 마련, 주민반발 최소화 등이었다.

주민여론 및 유료방송 관련 정보제공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4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이중 아날로

그 종료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대비, 콜센터 운영 등은 전문가 전원이 타당한 안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유료방송가입자는 시범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는 안에 대해서는 5:5로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었다.

시범사업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5가지의 안이 제시되었으며, 대체적으로 타당한 안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조체계 마련 및 콜센터와 상담센터 설치, 일대일 방문상담에 대해서는 전문가 10인 모두 타당한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

V. 결론 및 정책 제언

이 연구는 2012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내의 지상파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추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정책 델파이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는 아날로그 종료일자의 강행과 방송사의 경영악화 등 총2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국내 디지털 전환의 위험요인은 디지털전환을 진행하는 국가들 중 가장 체계 있게 진행된다고 자주 인용되는 영국과 비교할 때 차이점이 나타났다. 영국이 시청자의 디지털 전환 거부나 소비자가 느끼는 기술적 복잡성이 발생확률과 파급효과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에서는 디지털 난시청 등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험정도가 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으로는 아날로그방송종료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이 본 궤도에 다다르지 못해 구체적인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책 수행 시기별 위험요인의 분석

디지털전환 위험요인들은 디지털전환이 진행되면서 일부의 위험이 감소되거나 없어지고 다른 위험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디지털전환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수행시기별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본전환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확률과 파급효과가 모두 높게 예측된 요인들에 대해서는 디지털전환 정책추진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위험관리의 대상요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디지털난시청문제과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 노후의 문제같은 요인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청 불가 세대의 다수 발생 문제와 같이 위험정도가 크면서 위험발생확률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상 격차가 큰 요인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직접수신기구의 시청불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강화

디지털전환은 가전산업의 진흥,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한정재인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도모, 시청자에 대한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상파TV방송은 방송에 이용하는 주파수의 할당이 정부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에 관한 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상파방송만을 수신하는 직접수신세대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강제이행정책인 디지털 전환 정책에 의해 자신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던 TV 수상기를 가지고 갑자기 TV를 시청할 수 없는 피해상황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다수의 시청자들이 디지털수신기기를 구입하는데 따른 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디지털전환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또는 커뮤니케이션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1차적 사회적 위험은 지상파방송을 직접수신하고 있는 가구가 아날로그방송종료일 이후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데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따라 시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시청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들 직접수신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접수신세대 중에서 경제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적인 전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위험관리 체계의 구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이연(2003: 64-87)은 위기관리계획은 사전에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훌륭한 계획은 문제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해 관련되는 주체별로 정부가 책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여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사의 디지털 송신시설 구축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공시청 설비노후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 전략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청자들의 기술적 대응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정부가 체계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 순위가 가장 높은 디지털난시청의 경우, 자연적 난시청은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인위적 난시청의 문제는 건축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변성수(2010:101)는 위기관리 조직들이 서로의 조직논리에 따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책임/손실 회피갈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현재 디지털전환특별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7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 정부부처들이 서로의 조직논리를 우선시할 경우 디지털전환 정책의 책임과 손실 회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중앙행정기관들은 디지털 전환 정책프로그램의 논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중심의 디지털전환보다는 기업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협력체계로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지범(2010: 243)은 외국의 위기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이 중앙정부 집중에서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예산 체계의 증장기화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전환 정책은 특히 다년간에 걸쳐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현재 회계연도 단위의 예산계획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아날로그방송 종료년도인 2012년까지 실질적인 중기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실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도 9월 정기국회 개최이후에도 차기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국회에서 할애하였다. 이와 같은 관행이 종료년도인 2012년까지 지속된다면 실행단위의 업무들은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실 집행될 중기계획과 해당 예산을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기 확정하는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현. 2008. 디지털전환특별법 통과와 실행과제(상). 방송문화. 4월호: 43-53.
- 박시백. 2009. 해외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과 디지털 전환. 디지털미디어트렌드. 7월호: 5-28.
- 방송위원회. 2006a. 디지털방송전환 추진점검단 보고서.
- 방송위원회. 2006b.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방송위원회. 2006c. 지상파방송 디지털전환 수요분석 연구.
- 변성수. 2010. 위기관리정책 집행구조에서의 갈등유형 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6(3): 86-102.
- 신중섭. 2009. 디지털방송 공동수신 설비 개선방향. 방송문화. 9월호: 44-47.
- 원종원. 2008. 델파이분석. 김우룡 외. 커뮤니케이션연구와 방법. 파주: 나남출판.
- 이종화·정용찬·김남두·신호철. 2009. 주요국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범사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인숙. 2007.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슈와 정책적 대응. 방송연구. 64: 131-159.

- 정인숙. 2008a. 디지털전환정책에 대한 형성평가분석. 한국방송학보, 22(5): 287-322.
- 정인숙. 2008b. 지상파 디지털 전환법의 주요 쟁점과 전망- 시청자 홍보, 재원, 편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춘계학술대회 발제문.
- 정인숙. 2009. 디지털전환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0(2): 5-33.
- 정인숙, 최선욱, 이숙, 이기수. 2009.. 디지털전환 정책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전파진흥원.
- 정지범. 2010.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위기관리의 진화-영국, 미국, 한국의 비교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239-254.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007.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8.
- 최선욱. 2007. 조속한 법안 처리로 산적한 현안 해결해야. 방송문화. 5월호: 4-13.
- 최선욱. 2008. 주파수 이슈와 아날로그방송 종료방안. 방송문화. 11월호: 54-57.
- 최선욱. 2009a.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정책이슈.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하계정책세미나 발제문.
- 최선욱. 2009b.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방송문화. 4월호: 36-41.
- Copps, M. & Adelstein, J. 2009. Letter to Senator Rockefeller, Representatives Hutchison, Waxman and Barton. 16 January.
- GAO. 2007.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Increased federal planning and risk management could further facilitate the DTV transition(GAO-08-4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Hart, K. 2009. 1. 30. DTV transition still in limbo. The Washington Post. available at http://voices.washingtonpost.com/posttech/2009/01/dtv_transition_still_in_limbo.html
- Lloyd, M. 2008. The DTV transition. testimony Presented at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 & 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 Education Fund. available at <http://www.civilrights.org/advocacy/testimony/lloyd-transition.html>
- Nielson. 2009.10. 2.8 Million Homes Unready for Transition to Digital TV as June 12 Deadline Approaches. available at <http://www.nielson.com>
- Svensson, P. 2009.6.12. Friday marks final signoff for analog TV service.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world/feedarticle/8555795>
- Starks, Michael. 2004. Report of the digital TV project, available at http://www.digitaltelevision.gov.uk/pdf_documents/publications/digitaltv_project_report.pdf
- Starks, Michael. 2007. Switching to digital television: UK public policy and the market. Bristol: Intellect Books. 정인숙 역. 2008.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가는 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鄭仁淑: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논문명: 케이블TV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현재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방송산업과 정책의 이해(2009), 방송정책이론과 방법론(2008)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디지털전환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2009), “디지털전환정책에 대한 형성평가분석”(2008) 등 다수가 있다(chung94@kyungwon.ac.kr).

투 고 일: 2010년 11월 1일

수 정 일: 2010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7일

Risk analysis in digital TV transition in Korea

In Sook Jung

This study explores risks in digital TV transition and analog switch off process in Korea. The serious risks with the transition identified by the study include digital coverage problems, interrupted access of millions over-the-air households and difficulties in upgrading communal TV system that enable TV signal to be received by an antenna, and then relayed to the flats in a building via an electronic distribution system. Second, the risks in DTV transition trial is related with a tight budget to support vulnerable people, to improve viewer awareness and to prepare for rapid response to problems. We use policy Delphi which seeks to generate differing opinions and divergent response on the risks in DTV transition from an expert panel. In the results, we suggest that there must be plans in place to respond rapidly to thos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who end up losing service, so that they get the education and assistance they need. In addition to an aggressive ongoing monitoring and the efforts of risk management for the transition stages, the administration must allocate additional funds to ensure that all viewers can make the transition to digital TV service.

Key words: digital TV transition, analog switch-off, risks, policy Delphi